

미래 사회환경의 변화

국 민 호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I. 들어가는 말

20세기가 점차 저물어가는 1997년 말에 한국사회는 IMF와 경제위기라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복병을 만나 그 동안 그려왔던 분홍빛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학자들이 연구하고 예견해왔던 21세기에 대한 예측(21세기위원회, 1992, 1993, 배규한, 1995)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아전인수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한국 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한국과 세계경제가 계속적으로 고도 발전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토플러(1981a, 1981b)나 드러커(1989, 1993)와 같은 미래학자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전망들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편리함을 강조한 반면 정보화, 국제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무시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은 그 동안 계속된 고도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과소비와 사치를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을 가능성조차 망각하고 만약에 대한 대비보다는 기술발전의 열매를 즐기는데 심취하였다. 그 결과 IMF 한파가 닥쳤을 때 한국인들의 충격은 더욱 심하였다. 경제위기에 따른 차후 한국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미래는 더욱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떤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추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까지 나타나고 진행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냉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한 관념 또는 추상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 대한 연구에는 여러 방법론이 많이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는 좀더 명확한 근거 하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을 선호한다. 이에 적당한 연구방법으로는 『연속성의 원리』에 기초한 『추세의삼법』과 『유추의 원리』에 기초한 『역사적 유추법』이 있다. 『연속성의 원리』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시간 축 위에 연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미래의 변화는 과거의 어떤 추세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된다. 『추세의삼법』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면서도 자료는 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변동유형 또는 추세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예측의 기간이 길면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예측력이 떨어지고 또 변화가 불연속적일 때 예측이 빗나갈 단점이 있다. 『유추의 원리』란 모든 현상에는 발생의 인과적 연관성과 순서가 있으며, 제반 현상간의 인과관계 및 발생순서를 관찰하면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귀납법이나 연역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통찰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 지각능력과 창조적 분석력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 유추법』이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일반화된 유형 또는 법칙을 찾아내고, 이것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배규한, 1995:43-64). 이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 강조하는 미래에 대한 연구 방법은 어떤 이상향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회변동 추세를 관찰하고 이의 원동력을 찾아내어 역사적 인과관계로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많지만 필자가 볼 때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보 및 기술혁명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미래사회에 대한 설명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명될 수 있고, 또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내용과 성격을 간단히 설명한 후, 정보기술 발전이 사회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 정보화 사회의 전체적인 설명은 최근 3권의 대작을 펴낸 카스텔(Castells)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고자 한다(Manuel Castells, 1996, 1997, 1998).

II. 정보화 사회의 성격과 컴퓨터 통신의 발달

1. 정보화 사회의 성격

지난 20세기 동안 지구촌은 냉전체제 하에서 자본주의(capitalism)와 국가주의

(statism)라는 두 개의 지배적인 생산양식 속에서 살아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가에 의한 자본의 통제하에 노동의 상품화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이루어졌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체제로 이의 주체는 자본가들이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 하에서는 이윤의 통제가 경제체제 밖에서 이루어졌다. 이익은 전적으로 국가권력 소유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국가주의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국가주의 모두는 산업사회의 발전양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산의 주요 자원은 새로운 동력자원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산업주의는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여기서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발전양식과는 다르게 미래 사회의 발전은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정보화 사회적 발전양식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양식은 생산자원을 지식창출, 기술발전, 정보가공, 그리고 상징전달에 의존한다. 그 생산 과정이 정보가공과 특정의 지식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보발전양식의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 생산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산업주의와는 다르게 정보주의는 기술발달과 지식축적을 지향한다. 이는 또한 고차원의 복잡한 정보가공을 추구한다.

정보주의는 자본주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확장 및 재충전과 연계된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는 1970년대 대량생산체제의 위기로부터 나타났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제2의 산업분할을 만들었다. 이는 세계 경제체제에서 생산과 시장 조직의 분할을 가져왔고, 정보화기술의 확산과 함께 기업에서 정보기술의 확산이 일반화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조직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의 방향은 기업환경변화의 급격한 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로 진행되었고, 많은 조직의 변화는 노동감축의 목표에 따른 lean생산모델의 소개와 함께 노동과정과 고용관행을 재정 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지난 20여년 간의 조직 변화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기술 패러다임과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조직 변천의 첫 번째 경향은 대량생산에서 유연생산으로, 포디즘에서 탈포디즘으로의 변천이다. 두 번째는 대기업의 위기와 함께, 혁신의 대행자로서 또 직업 창출의 원천으로 중소기업의 탄력의 재인식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일본식 경영기법에 대한 지향이다. 이는 적응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안되었으며, 기업 간의 관계보다는 경영과 근로자간의 관계에 관심을 보였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 체제의 개조를 통해 나타난 기술혁신과 조직의 변화는 앞으로의 사회를 정보자본주의(informational capitalism)로 규정할 만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개조와 정보주의의 확산이 세계적 차원의 불가피한 변화방향이라 할지라도 각 사회는 그들의 독특한 역사, 문화, 제도에 따라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다양한 행동/반응을 했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는 한편으로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유사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서 여러 사회세력과 집단들간의 문화적, 제도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오늘날의 기술혁명의 성격은 지식과 정보의 집중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창출해내는 과정과 정보의 가공 및 전달과 그의 적용에서 나타난다. 기술의 전파는 그것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의해 두루 적용되고 더욱 개선됨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은 단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기술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 같아진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2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기술혁명을 가져왔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기술의 즉각적인 적용 및 사용은 전 세계를 정보기술로 연결시켰다. 최초의 정보기술혁명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되어 일어났는데 이는 다양한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미리 계획된 필요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조직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이의 발달과 적용, 궁극적으로 그의 내용은 그것이 확장되는 역사적 맥락에 의해 결정적으로 규정된다. 1980년대에 들어 자본주의는 경제와 조직의 실제적인 개조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기서 새로운 정보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보기술혁명은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뜻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그것의 성격은 미래의 발전방향을 크게 규정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이 국부의 원천이다. 그리고 기술은 중요한 생산성 유인 요소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생산성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기술혁신 자체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없다. 경제성장의 실질적 대행자는 기업과 국가인데 이들은 오로지 인류의 생활 향상을 위해 기술이나 생산력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경제체제의 규칙 내에서(정보자본주의하에서) 주어진 역사적 문맥에 따라 행동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을 한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아니라 이윤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따라서 생산성 향상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나 유일한 수단은 아닌 것이다. 정치제도는 그들의 경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영역을 지향할 것이다. 이윤과 경쟁력은 기술혁신과 생산력 향상의 실질적인 결정요소다.

정보화 경제의 발흥은 현존의 기술변화에 종속되어 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변화 과정과 연계된 새로운 조직원리의 발전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이는 정보화 경제의 역사적 기원을 구성하는 조직원리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간의 수렴이자 상호작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원리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제도적 맥락 하에서 나타난다. 이는 정보화 경제의 조직적 정돈의 공통점과 문맥적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2. 컴퓨터 통신의 특징

지난 20여년간 정보화의 핵심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서 우선적으로 컴퓨터 통신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특징은 비동시성이다. 컴퓨터 통신의 장점은 언제나 자신이 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화는 기본적으로 일대일의 커뮤니케이션이고 TV나 라디오는 일대다의 대화다. 이와는 달리 컴퓨터 통신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통신이 가능하다. 인터넷의 경우, 수신인 주소란에 전자우편 주소만 첨가하면 그의 메시지를 전세계 독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은 이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면 자신의 웹 서버를 개설하고 전세계 웹 사용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송이나 신문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수천 수만 개의 채널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네트워크에 올릴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컴퓨터 통신은 비동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없으며 지적 대화가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차분히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쓰거나 읽게 되고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사고를 다듬을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지적인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윤영민, 1996: 16-19).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 다수의 사람들이 컴퓨터 관련 기술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 공간이다. 현실 속의 사회적 공간에는 물체와 정보가 공존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의 공간에는 정보만이 존재한다. 컴퓨터의 기억장치에는 물체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비트(bits)로 바뀐 정보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감정, 의견, 상상, 사실, 정치, 사고 등 온갖 종류의 사회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컴퓨터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정보공간이라 부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억이 넘는 컴퓨터가 존재하는데 이들 컴퓨터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되면서 정보공간을 형성한다.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기업, 일반 가정 모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사는 다른 어떤 과학 기술보다도 사회적 노력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과 조직이 연관되고 그들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 정보공간의 역사는 인터넷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이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와 IP(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하드웨어 상으로 다양한 구조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 연결되어 통신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들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공용어가 인터넷에서 TCP/IP이다. TCP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프로토콜이고 IP는 인터넷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패킷스위칭(packet-switching) 기술이다. 패킷스위칭이란 메시지를 패킷(소포)이라 불리는 조각들로 쪼개 다음 각각의 조각에 수신인 주소와 같은 정보를 붙여 목적지에 전송하고, 수신처에서 그 조각들을 결합하여 본래의 메시지를 재생하는 방식이다. 패킷스위칭의 장점은 우선적으로, 각각의 터미널로부터 패킷이 간헐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들이 하나의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를 제어할 수 있고, 전송경로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고품질, 고신뢰도의 전송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전송속도를 바꾼다거나, 정보를 압축한다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암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영민, 1996: 19-23).

3. 컴퓨터 통신의 발전과 사회적 효과

컴퓨터 통신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9년 미국방성의 알파(ALPA,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패킷스위칭이 도입되면서 초기 인터넷의 뼈대인 알파넷(ALPANET)이 탄생하였다. 알파넷은 군사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적인 네트워크였다. 그것은 미 본토가 핵무기에 의해 피폭당해 통신망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로 분산적 구조를 가진 컴퓨터 네트워크였다. 알파넷은 초기에 기술상으로 문제투성이었지만 미국 서부 소재 대학의 연구소들과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였다. 알파넷은 1990년 서비스를 중단할 때까지 네트워크의 뼈대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기 알파넷에서 전자우편의 인기는 설계자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학자나 기술자들은 원거리 통신에 매우 의존적으로,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멀리 떨어진 동료들과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 그들에게 통신은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전자우편이 대환영을 받은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의 인터넷은 1972년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제1차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각국의 전문가들은 알파넷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의 국제적인 커넥션을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1982년에는 전송 프로토콜이 TCP/IP로 대체되고 이듬해 TCP/IP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중대한 결정이었다. 결국 1983년 알파넷으로부터 군사 부분이 밀넷(MILNET)로 분리되고, 인터넷은 군사적 성격을 크게 탈피하였다.

인터넷이 다시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엔에스에프넷(NSFNET)의 출현이다. 미 정부 내의 과학학술진흥기구인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1980년대 후반 미국 내 다섯 군데에 슈퍼컴퓨터를 설치하였다. 국립과학재단은 슈퍼컴퓨터를 가급적이면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였으며, 알파넷의 IP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자체 네트워크인 엔에스에프넷을 만들었다. 이의 구조는 각 대학의 중앙 컴퓨터들이 직접 슈퍼컴퓨터에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여러 개 만들어 각 대학은 해당 지역의 중심 컴퓨터에 연결되고 그 중심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역 호스트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엔에스에프넷은 급속도로 미국내 대학들에 확산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 이것이 알파넷을 대신하여 인터넷의 뼈대가 되었다. 오늘날 80개국 이상에 소재하는 컴퓨터나 네트워크들이 엔에스에프넷에 연결되어 인터넷은 명실상부하게 지구적인 정보시스템이 되었다. 1991년 멀티미디어 기능을 가진 WWW가 인터넷에 도입된 이래 인터넷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컴퓨터 비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상업적 통신이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사회과학적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터넷 자체가 냉전시대 군사적 프로젝트의 산물이란 것은 자못 흥미롭다. 그것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상업적이든 군사적이든 개발 당사자나 후원자가 갖고 있는 가치가 투영된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개발의 가장 흔한 목적은 국가 방위이거나 이윤 추구이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도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충당시킨다. 둘째, 특정한 의도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 개발초기의 의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은 당초의 의도와 다른 예기치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에서 볼 때, 테크놀로지와 사회구조는 상호규정적이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기존 사회구조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발전된 테크놀로지는 역으로 다음 시점의 사회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테크놀로지는 그것을 낳은 사회구조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활용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사회구조는 자기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한 테크놀로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변동할 수 있다(윤영민, 1996, 23-65).

정보공간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고전적 이론이 실현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와 주장이 거의 검열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교환된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몰락하기 전 소련의 급변하는 내부 사정이 서구로 알려지도록 하는데 기여했고, 천안문 사태 때도 천안문 광장에서의 사태 진행이 정보공간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멕시코의 농민 반란인 사파티스타 운동이 북미 여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도 인터넷상이었으며, 범지구촌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활동에 대한 후원도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astells, 1997). 오늘날 동성연애자들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컴퓨터 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 네트워크 기술은 1990년대 초에 들어 세 가지 경향의 수렴에 의해 양적인 도약

을 했다. 이는 원거리 전자통신망의 디지털화(계수화), 광대역(廣帶域) 자동중계의 발달, 네트워크에 의해 접속된 컴퓨터 성능의 극적인 증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능은 반대로 극소전자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발전에 의해 정해진다. 조직의 요구와 기술변화의 수렵은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네트워킹(networking)을 경쟁의 근본적 형태로 성립시켰다.

협동과 네트워킹은 비용과 위험을 나누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앞으로 네트워크 밖에서의 생존은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갈 것이다. 급속한 기술변화의 환경 속에서 기업보다는 네트워크가 실제적인 작동 단위가 되고 있다. 조직의 위기 및 변화와 새로운 정보기술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조직 형태가 정보화된 세계경제의 특성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네트워크 산업(the network enterprise)이다. 여기서 조직의 목표와 목표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개조한다. 성공적인 조직은 지식을 창출하고 정보의 능률을 가공할 수 있는 조직들이다. 네트워크 산업의 원료는 정보화되고 세계화된 경제의 문화로 네트워크 산업은 이를 물화하여 상품으로 개발한다. 그것은 지식의 가공을 통해 신호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Castells, 1997: 170).

Ⅲ. 미래 사회환경의 변화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미래 사회환경 변화의 핵심은 국가의 통제력 약화와 정체성의 상실/강화문제다. 이 장에서는 국가의 통제력 약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정체성 문제,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식품의 산업화와 미각의 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국가의 약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시간과 공간을 흡수 병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모형을 설정하고 지배와 권력의 네트워크가 되는 시간과 공간 조직을 독점해왔다. 이것이 근대 사회가 국가의 산물이 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제는 자본, 재화, 용역, 기술,

통신, 그리고 정보의 국제적 이동에 의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국가가 전통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민족 정체성을 재창조하여 점유해온 역사적 시간은 자율적인 주체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초국가적 기구들을 발전시켜 전세계적으로 권력을 지속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간 속에서 국가의 통치권은 더욱 훼손되어간다.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력을 분산시켜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으나, 컴퓨터 통신의 발달은 국민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더욱 강화시킨다.

전세계적으로 가상시간의 단위로 작용하는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의 상호의존은 국가간의 통화를 연결시킨다. 달러와 엔, 그리고 유럽통화의 지속적인 교환은 이들 통화들간의 체계적 조정을 강요하고, 이들이 현금시장의 안정성 정도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척도로 작용한다. 다른 모든 통화는 이들 세 종류의 통화와 체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발전도상국의 경제정책은 국제적 압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1990년대에 들어 각 정부의 경제정책의 자율성 정도는 오늘날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자본이동에 의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통제에 대한 어려움은 다국적기업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이 통합된 무역 네트워크와 이들의 생산에 의해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는 더욱 더 국제 자본시장과 국제 채무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일도 국제경제에의 의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생산과 투자의 국제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였고, 산업국가의 정당성 창조에 핵심적 요소였던 복지국가를 위협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의 장애를 탐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경비건으로 창출되었다. 이제까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해왔던 국가에 의한 대규모 보호정책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금융정책을 통제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생산과 무역을 조직하고, 세금을 걷고, 사회적 이익 제공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비록 국가가 약간의 규제 능력과 국민에 대한 상대적 통제능력을 갖고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에 대한 규제능력은 상실되었다.

국제 금융시장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의 하나가 범죄의 국제화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범죄의 파급과 그것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범죄경제의 규모와 동력으로 볼 때, 정치와 경제 모두에 있어서 조직범죄의 국제적 연계와 그것의 국제관계적 조건이다. 새로운 것은 초국가적 범죄의 영향이 국가의 여러

국면에 침투함에 따라 나타나는 궁극적인 불안정이다. 그 예는 마약, 총기, 기술, 인간 조직, 청부살인, 돈 세탁 등 다양하다. 돈 세탁을 통해 범죄경제는 국제금융시장과 연계된다. 카스텔의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7500억 달러의 돈이 세탁된다(Casrells, 1997: 260). 특정 국가의 경우, 정치의 상층부에까지 부정부패, 위협,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범죄경제와 연계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의 국제관계는 범죄경제에 대항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통한 협조에 의존하고 있다. 점증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의 중요성은 전체 국가경제를 자극하거나 불안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오늘날 범죄경제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은 이탈리아, 콜롬비아, 멕시코, 러시아, 중국 등이다. 그러나 이제 국제적 범죄경제의 영향은 이들 나라들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범세계적으로 미치는 범죄경제, 그들의 부의 크기와 영향력, 국제금융과의 연계 등은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부패를 일으키는 혼란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듯 여러 차원에서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의사결정력을 약화시킨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대중전달시대에 정보와 오락의 통제와 그를 통한 여론과 이미지 통제(미디어와 통신의 통제)는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을 고착시키는 도구였다. 오늘날 국가의 대중매체 통제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미디어의 소유가 일국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화되고 있고, 기술의 유연성과 영속성은 국가 통제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디어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TV 방송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고, 라디오와 신문은 엄격하게 정부의 잠재적 억압하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 모든 것이 변화하였다. 이는 주로 통신기술의 변화에 의거한 것이었다. 통신방식의 다변화, 모든 대중매체의 디지털 체제로의 통합화, 상호작용하는 멀티미디어 방식의 시작, 전화선을 통해 컴퓨터와 연계된 통신의 발달 등은 전통적인 국가의 규제방어 수단을 단숨에 붕괴시켰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대규모로 민영화되고 공공방송도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살아남는 관계로 공공 방송이 민간 방송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신문사들도 거대 금융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콘소시움(조합)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점차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니라 자본, 재능, 기술, 법인소유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엮어져 국제화되고 있다. 아직 각국의 정부가 주식의 소유를 통해 자국의 중요한 미디어를 통제하고 미디어 세계에 다각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미디어를 직접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미디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많은 정치적 비용이 들어간다. 시민들은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 자원의 정보를 얻는 특권을 위해 끊임없이 격렬하게 투쟁한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에 독재주의 국가에서조차 미디어에 대한 전쟁에서 국가가 시민들에게 패배하는 이유다. 오늘날 인공위성이나 컴퓨터 CD, 비디오 등을 통해 정보와 이미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통신이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가 그에 접근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컴퓨터로 매개된 통신의 발달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 통신시대를 개막했다. 정보화 시대 훨씬 이전부터 정보의 통제는 국가 권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경을 넘어서는 정보의 흐름으로 볼 때, 정보의 흐름의 원천은 비록 그것이 간파되더라도 기소되기 쉽지 않다. 앞으로 몇 년 더 국민국가들이 전세계적으로 연계된 전자통신망을 통해 순환되는 정보의 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는 이미 끝난 게임이다. 미디어와 전자통신의 세계화/지방화는 정보를 국가의 통제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

한편, 국제적 영역에서의 국가 권력의 사용은 영토방어, 외교정책, 환경정책 같은 국제 공공정책에서 다자국주의적(multilateralism) 압력에 따르게 된다. 냉전 이후의 세계는 더욱 더 다자국주의적 상호의존에 따른다. 이는 두 강대국 중심의 군사 블록이 약화되고, 전쟁에서의 신기술의 엄청난 파괴력이 알려지고, 환경 안전과 같은 지식과 정보의 증가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주요 도전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자국주의가 강화되었다. 오늘날 어느 한 국가가 국제문제에 대해 자신의 힘만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불가능해졌다. 천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외교정책은 본질적으로 다자간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한 국가가 혼자 존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걸프전에서 보았다시피 오늘날 전쟁은 전적으로 전자통신기술에 의존한다. 국민국가는 지구환경의 세계적 경영에 있어서 정당성의 한계에 직면하고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한계를 느낀다. 과학과 기술은 자연의 황폐화와 그것이 인류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수많은 새로운 지식을 보급시킨다. 여기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생태학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각국 정부의 파괴적 진보의

책임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 개별 국가는 오존층 파괴, 산림파괴, 수질오염, 대양 생태계의 고갈 등의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대해 혼자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관계로 더욱 무력해진다.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감독능력은 사회 전반에 퍼져있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독점력은 초국가적, 비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국가는 더 이상 독점을 지속시킬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도 없다. 국민국가가 단지 권위라는 한 가지 자원에 의해 특징지어진데 비해 새로운 권력체계는 다양한 자원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국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실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제정책의 부품으로 기능하게 된다. 비록 국가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지라도 그들은 점점 더 넓은 권력 네트워크의 마디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국민국가가 결정 능력을 보유할지라도 이는 권력과 반대권력의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체만으로는 힘이 없다. 그들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와 영향력을 작동시키는 더 넓은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쟁력은 아직 국가정책의 한 기능이고 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매력은 국내적 경제환경의 한 기능이다.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직간접적 보호를 받기 위해 모국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은 국가 영토 내에 위치한 경제 단위의 생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국민국가가 쇠퇴한다는 견해는 오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국민국가는 주권을 가진 주체로부터 국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제도들의 공유된 통치권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은 물론 자신들이 대변해야 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변모되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영향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가 초국가적인 거대 권력과 국내의 미시적 과정에서 독립하여 자신만의 권력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할 때 국가는 거대한 국제적 압력에 직면한다. 국가는 한편으로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요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이해와 밀접히 연합해야 하고 자본의 흐름에 유리한 세계적 규칙을 고수해야 한다. 또한 다자국적인 국제질서의 좋은 일원이 되기 위해 국민국가들은 상호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국가는 세계화 흐름의 소용돌이에 쫓겨나지 않는 마지막 피난처로서 영토내의 국가와 국민 공동체 방어를 위해 생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일국의 공동체적 이익을 강조하면 할수록 국가는 권력을 공유하는 국제체제의 능률적인 공동대행자가 될 수 없

다. 이것이 국가의 딜레마이며, 국가의 영향력 약화의 중요한 측면이다(Castells, 1997: 243-308).

2. 정체성의 위기

우리가 사는 세계와 우리의 삶은 세계화와 정체성 성립 간의 갈등에 의해 구성된다. 정보기술혁명과 자본주의의 개조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즉 네트워크 사회를 야기하였다.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 노동의 유연성과 불안정성, 노동의 개별화, 상호 연계된 다각적인 미디어 체계에 의해 구성된 가상현실의 문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조직 형태의 세계화는 기존의 제도들을 뒤흔들고, 문화를 변형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키면서 탐욕, 혁신, 희망을 동시에 자극하였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사 반세기 동안 기술혁명, 자본주의의 변형, 국가주의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문화적 특이성과 자신의 삶과 환경에 대한 통제를 위해 세계화와 동시에 이에 도전하는 집합적 정체성의 강력한 표현이 널리 솟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복합적이고 매우 다양한 것으로 각 문화의 형세(contour)와 각자의 정체성 형성의 역사적 자료에 따른다.

그들은 여성해방운동과 환경운동처럼 가장 근본적 수준의 인간관계를 변형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에 계획된(proactive) 운동을 포함하는 동시에, 신, 민족, 윤리, 가족, 현장을 위한 참호를 구축하는 일련의 반동적 운동도 포함한다. 세계 전역에서 상호작용하는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강력한 기술적 미디어가 다양한 주창자들에게 의해 사용되면서 이들의 투쟁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제환경론자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인터넷이다.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기술과 경제의 세계화 과정은 다양한 문화, 역사, 지리적 조건에 따른 자원의 복잡성에 의해 도전받고 궁극적으로 변형된다. 따라서 기술혁명에 따른 세계화 과정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분석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운동에서 옳고 그름이 없으며, 진보와 퇴보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변화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천당과 지옥으로 인도할 뿐이다.

정체성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표현의 자원이다. 정체성은 다른 의미의 자원보다 미리 주어진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적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여러 개가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복합성은 스트레스의 자원이 되고 자기표현과

사회행동 모두에 모순이 된다. 정체성은 행위자 자신을 위한 의미의 자원이 되고, 개별화 과정을 통해 그들 자신에 의해 구성된다. 정체성은 또한 지배적 제도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때 행위자들이 그 제도들을 내면화할 때만 정체성으로 된다. 정체성은 의미를 조직하여 강력한 의미의 자원이 된다. 의미란 사회적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 목적에 대해 갖는 상징적 정체성이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회적 행위자에게 있어서 의미는 시공을 초월해 자신을 지탱해주는 원초적 정체성 주변에서 조직된다.

정체성은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개인, 집단, 사회는 그들의 사회구조와 시공간적 뼈대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결과와 문화적 프로젝트에 따라 그들의 의미를 재배열한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정체성의 상징적 맥락을 결정한다.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은 권력관계에서 야기되어 발생된다.

정체성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진다. (1) 정당화 정체성(legitimizing identity): 이는 사회의 지배적 제도에 의해 그들의 지배를 확산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저항적 정체성(resistance identity): 지배원리에서 저평가되거나 비난받는 위치나 환경에 있는 행위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형태나 반대의 원리로 저항 또는 생존의 참호를 만든다. (3) 계획적 정체성(project identity): 사회 행위자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그를 통해 전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한 예는 여성해방운동이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저항으로부터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사회가 역사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생산, 재생산, 성, 인성의 전체 구조에 대해 도전한다.

자연적으로 저항으로 시작된 정체성은 계획을 야기시켜 지배적 사회제도가 되고 나아가 그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당화 정체성이 된다. 어느 한 정체성도 그 자체로 정수가 되지 못하며, 어떤 정체성도 역사적 문맥을 벗어나는 진보적 또는 반동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각 정체성 형성 과정은 사회 구성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이끈다. 정당화 정체성은 시민사회를 만들어내고, 저항 정체성은 자신들만의 집단이나 공동체 형성으로 간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억압에 대항해서 집단적 저항을 형성한다. 계획 정체성은 집합적 사회 행위자를 만든다. 이를 통해 각 개인들은 그들 경험의 전체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그들만의 정체성을 창출한다(Castells, 1997: 6-9).

어떻게 누구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이 구성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의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제기될 수 없다. 이는 사회적 문맥의 문제다.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위치지어지고 형성된다. 자아정체성은 개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아니다. 이는 그의 전기에 의해 반항적으로 이해되는 자아이다. 사실상 인간이 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는 대부분의 개인과 사회집단의 국내적 성격과 세계적 성격간의 체계적 분리에 근거한다. 새로운 사회체계에서, 시민사회가 세계적 네트워크에서의 권력창출 원리와 특정 사회와 문화의 연합의 대리인 사이에서 더 이상의 일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을 줄어줄게되고 점차적으로 해체된다. 의미의 추구는 공동체 원리의 주변에서 방어적 정체성의 재구성에서 나타난다. 주체(subjects, 또는 자아)는 건설될 때 더 이상 분해과정에 있는 시민사회에 기초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공동사회의 저항의 연장으로 일어난다. 일 예로 종교적 원리주의를 들 수 있다. 종교적 원리주의는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이 “어떤 다른 것”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근본주의자들은 언제나 복고적이고 반동적이다. 근본주의란 인간 행동과 사회제도를 율법에 의해 나타난 규범과 동일시함으로써 나타나는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엄격한 권위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근본주의자들이 그들의 권위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Castells, 1997: 1-67).

3. 가부장주의의 종언

20세기를 특징짓는 가부장제는 최근까지 모든 가족 구조의 기본구조였다. 이는 가족 구조에서 남성이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강요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권위가 일상화됨으로써 가부장제는 정치, 법,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걸쳐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되었다. 인간 관계와 인격 형성은 가부장제적 문화와 제도에 기인하는 지배와 폭력에 의해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가부장제적 가족구조가 서기 이천 년대의 길목에 들어선 오늘날 여성들의 노동참여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크게 도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의 배경에는 정보화에 따른 경제의 세계화 확대와 인간 재생산 기술의 변화, 여성들의 투쟁 능력 향상, 그리고 다변화된 여성해방운동 등이 있었다.

대규모 여성들의 임금노동에의 참여는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협상능력을 증대시켰으

며, 이는 가족구조에서 제공되던 남성 지배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이는 또한 여성의 일과 생활에 과중한 노동을 부과시켰다. 여성들은 임금노동자, 집안 일, 자녀 돌보기, 그리고 밤에 남편을 위한 봉사 등의 4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근대 역사의 도시 생활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투쟁은 사실상 일상생활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와 권리를 다루기 위한 여성운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여권 확장 운동은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 반세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여성억압에 대한 여성들의 격렬한 반격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특히 선진 산업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남성들과 동등하다고 간주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여성 자신들이 그들의 육체와 삶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사 반세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정보공간의 발달로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매우 중요한 혁명이다. 이는 사회의 기저를 뒤흔들었고 우리가 누군가 하는 믿음 자체를 바꾸어놓았다. 이제 이러한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 억압, 학대 문제가 사라지거나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런 추세에 따라 힘을 잃어가는 남성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게 분출되고 있다. 이는 결코 조용한 혁명이 아니다. 여성해방과 남성들의 기득권 보호로 나타나는 인류의 전망은 사회혁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간들의 삶에 파괴하고 그에 따른 파편들을 흩뜨려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 간의 여성의식의 변화와 사회의 가치변화는 정치권력부터 인성구조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류의 경험을 동요시키는 동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만약 가부장적 가족이 비틀거리다면 전체 가부장제 체제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될 것이다. 이는 남성들에게만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기초한 종교, 이념, 가치관 등 모든 것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미국의 민병대 창설 붐과 기독교적 원리주의, 아랍의 극단적 원리주의, 일본의 옴 진리교, 극단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등과 같이 가부장제적 질서를 복원하려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형태의 가부장제적 가족구조가 쇠퇴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대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날이나 하는 것이다. 이는 네 가지 요소로 설명된다. ①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함한 경제의 변화가 여성들에게 교육기회 개방 및 확대를 나타냈다. ② 생리,

약학, 의학적 차원에서의 기술 진전이 아이 양육과 재생산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증대시켰다. ③ 1960년대의 여성운동 발달 이래로 지배적 사회질서인 가부장제가 여성해방운동의 발전에 의해 크게 충격을 받았다. ④ 지구 전역에서 세계문화의 이념이 상호연계되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와 함께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상호 뒤섞여 전파되면서 급속히 퍼져나갔다.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의 발달은 기존의 성 관계에 강력한 충격파를 던져주었다. 이는 특히 지금까지 불문시되던 이성의 결합에 의한 가족구조 관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여성동성연애자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이 억압의 주체인 남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남성의 지배는 여성 곤궁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전통적 가족의 역할과 남녀관계의 갈등에 대한 남성동성연애자들의 의문은 게이 가족과 같은 형태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의 탐구에 대한 개방의 계기가 되었다. 모두에게 있어서 제도적 제약을 넘어서는 성의 해방은 자아표현의 새로운 신천지가 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오늘날 인류 역사 초기부터 존재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부장제의 이성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전통적 가족규범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족은 기본적인 사회화 기제를 이루어 왔고, 가족에서의 남녀의 성(sexuality) 구별은 인성형성과 크게 연관되어져 왔다. 이로 볼 때, 정보화 과정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타난 각종 사회운동과 가족구조의 변화는 미래 사회의 인간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현저한 특징은 가족위기의 징후이다. 가부장제적 가족의 위기란 성인 남성 가장이 전 가족에 대해 권위와 지배를 안정되게 행사하는 가족모델이 약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 징후는 다음과 같다. ① 이혼과 별거에 의한 결혼 가족구성원의 해산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인 가족(single family) 또는 한 부모 자녀 가족(one parent family)으로 이끄므로써 가부장제적 가족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 ② 결혼 위기의 증가와 함께 성인 남녀가 결혼과 직업, 자녀 양육을 양립시키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결혼 연기, 또는 결혼 밖에서 커플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예: 동거)이 증대되었다. 이에 대한 합법적 제재의 부재는 가부장적 권위를 더욱 약화시켰다. ③ 노인의 증가와 성별에 따른 사망력 차이, 그리고 가구 구조의 다양성 증대는 고전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족 모델을 약화시키고 재생산을 약화시켰다. 여기서 일인 가족과 한 부모 자녀 가족이 더욱 번창하게 된다. ④ 가족의 불안정 외에도 재생산 행위에

대한 여성의 권한이 증대되면서 가부장제적 가족의 위기는 인구 보충에 대한 사회적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다. 즉,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혼자된 엄마에 의해 부양된다. 전반적으로 현대 여성들은 아이를 적게 낳거나 첫 출산을 연기시킨다. 이 모든 것들이 상호 강화되어 수 천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던 가족형태인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를 알리고 있다.

<표 1> 유럽과 북미의 100 커플 당 이혼율

	1970	1980	1990
캐나다	18.6	32.8	38.3
덴마크	25.1	39.3	44.0
프랑스	12.0	22.2	31.5
그리스	5.0	10.0	12.0
헝가리	5.0	3.2	8.0
스웨덴	23.4	42.2	44.1
미 국	42.3	58.9	54.8

자료: Castells 1997 p. 140 Table 4.2

오늘날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는 이혼율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 <표 1>에서 보듯이 서유럽과 북미의 이혼율은 모두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1980년 미국의 이혼율은 60%에 가까웠다. 이혼한 커플 중, 아이들을 가진 커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혼율을 증가하는 한부모 자녀 가족을 증가시킨다. 또 결혼 연령도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정식 결혼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가장 가족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선진 산업국에서의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는 출산율을 인구 재생산율 이하로 떨어뜨림으로서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결혼의 불안정성, 동거, 결혼 밖에서의 출산의 비율은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중 높은 정치력을 지니고 있으며, 삶의 질이 비 물질적 차원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에서 높다. 이혼, 동거, 결혼 밖의 출산은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즐기고 여성 가장 가족이 사회적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위를 가질 때 널리 퍼진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많은 경우는 여성들의 가난과 교육부족

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 변화의 전반적인 경향은 도전받지 않는 아버지의 권위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족유형의 잠재적 해체와 약화다.

1980-90년대 정보화 사회의 결과는 각종 서비스직과 여성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며 수렴해간다는 것이다. 많은 발전도상국들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사회에서의 많은 여성들은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경제의 정보화와 연계된 서비스 유형과 여성의 고용 확대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더 이상 낮은 숙련 직업에 집중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전체의 다양한 기술직업 부문에 두루 분포되어 있고, 여성 직업의 증가는 직업 구조의 상층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 비율이 남성들의 그것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의 설명 이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는 물론 그 동안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회의 노동 수요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노조에 잘 가입하지 않는 경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임금을 남성보다 적게 (보통 60% 정도로) 지불해온 관행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여성의 임금 노동시장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가족 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제 가족 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공헌은 매우 중요한 가계 소득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집 안에서 여성의 협상력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 그 동안 엄격한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는 실질적인 문제였고, 여기서 가사는 전적으로 여성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가부장제적 권위에 대한 도전은 매우 커다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위기는 생활을 공유하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서 다양한 파트너 관계를 야기시켰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들 고유의 문화와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가부장제적 제도를 개조하거나 바꾼다. 그 변화 방향은 가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로의 변화와 가족 내 권력구조의 변화다. 이혼이 보편화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하게 되면 3년 안에 다시 결혼한다. 게이와 레즈비언도 자신들의 결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나아가, 만혼, 동거, 이혼, 별거 등이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가족을 벗어난 다양한 삶의 프로필을 만들어낸다. 미국의 경우 미혼자녀와 같이 사는 부부의 비율이 44.2%(1960)에서 25.5%(1995)로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은 미국 전체 가구의 1/4 정도에

나 해당되는 말이다. 1990년 현재 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아이들의 비율은 50.8%에 불과했다. 한쪽 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의 비율은 1970-1990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는데 이는 전체 아이들의 25%였다. 이들 중 결코 결혼한 적이 없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의 비율은 31%나 되었다. 결혼에 앞서 동거하는 커플의 비율이 8%(1960)에서 49%(1980년대 중반)로 급증하였으며, 이들 중 약 절반이 아이들을 갖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여성들의 직업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의 전적인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매우 적어졌다. 따라서 아이들 돌보는 것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2/3 가량의 아이들이 부모가 직장에 나간 사이에 친족이나 이웃의 돌봄을 받고 있다. 탁아소나 보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가난한 여성들은 아이들과 갈라서던지 일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들은 결국 아이들을 그들로부터 떼어내는 사회복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남성들은 어떤가? 집안에서 남성들의 경제적 협상력이 감소함에 따라 남성은 더 이상 가족에서 지배력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재생산 과정에서 남성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가족 성원 중 아이들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나아가 여성 해방 아이디어가 범람함에 따라 남성들은 과거에 비해 덜 안전한 직업에서 더 적게 벌게 되었고, 가족 내에서의 권위도 상실되게 되었다. 남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을 재생산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몇 가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첫째가 별거를 통해 가족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게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고 많이 이루어지는 해결책은 가족 내에서 남녀간 계약을 재협상하여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집안 일을 같이하고,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고, 성적 파트너 관계를 조정하고, 부모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선택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러한 문화적 변혁 과정에서 제 1의 희생양은 어린이들이다. 그들은 현존의 가족위기의 환경에서 계속해서 무시된다. 혼자된 여성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지내려 할 때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자율과 개인적 생존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동일한 추구를 하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방치하기 쉽다. 복지국가적 보조가 점차 줄어들에 따라 성인 남녀는 어린이 문제를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하게 되었다.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학대는 자율과 함께 부가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당황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여성 인구의 직업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나타난 여성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반란과 여성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은 가부장제적 핵가족에 대해 강하게 도전하였다. 가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별간의 변형된 관계에 따라 새로운 제도적 형태의 사회 관계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제적 가족 규범의 뿌리가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 사회에서 이러한 노력은 혁명적 변혁을 요구하는 넓고 험난한 길이다(Castells, 1997: 134-242).

4. 식품산업과 미각의 변화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여성들의 직업 참여율 증가는 사람들의 식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세계의 식품 시스템이 급변하고 있다. 정보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농업도 세계화되고 있다. 그 결과 식량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식량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사보다는 식품 가공 과정에 종사하고 있다. 냉장, 가공, 포장, 유통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제 이들 포장·가공업체가 전 세계의 식품산업을 지배하게 되었다. 식품산업은 소비자들이 그것 없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기본 필수품들을 판매한다. 경쟁에서의 성공은 포장, 광고, 판촉 등으로 달성된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일어난 중대한 일은 거대 식품회사의 포장되고 규격화된 제품들이 사람들의 식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표준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즉석식품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미각을 급속히 표준화시키고 있다. 지구식품공학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다. 또한 냉동, 포장, 수송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료품들이 손쉽게 각 가정에 전달되고 누구나 손쉽게 사시사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계절을 넘어서는 식품생산의 중요한 사회적 결과는 이들 식품들을 통해 연중 무휴의 중산층 고객을 대량 개발하는 것이다.

지구 식품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고객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려 한다. 또한 고객들의 미각 변화를 주의깊게 추적하기도 한다. 특히 생활의 향상에 따라 건강 문제가 중요시 됨에 따라 건강식품, 건강식단이 식품산업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신선하고, 자연산이며, 건강에 좋은 식품은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성공하는

식품은 맛이 좋아야 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품위를 느끼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건전성과 자연스러움을 더욱 포장한다. 여피족들에게는 신선한 야채와 저지방 고기, 그리고 파스타(마카로니를 만들기 위한 반죽 또는 그 요리)가 필수품이 되었다. 이에 대해 식품기업들은 땅콩버터나 감자칩과 같은 저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여 선전하였고, 각종 무지방 제품(샐러드 소수, 마요네즈, 치즈, 요쿠르트 등)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먼 거리 식품 수송 과정에서 맛과 신선도가 떨어짐에 따라 각종 가공식품이 발달하고 또 온갖 종류의 맛과 향기를 증진시키는 화학첨가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비만과 각종 성인병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식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쇠고기와 베이컨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과일과 야채 등 식물로부터 나오는 식품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가격도 비싸지고 있다.

전 세계의 식사 관습은 더욱 서구화, 특히 미국화되고 있다. 유통혁명과 위성통신의 발달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대형 식품·유통 매체의 전 세계적인 진출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TV 광고를 통해 포장된 식품을 선전하고 있으며, 패스트 푸드(fast food) 체인점이 급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TV 광고의 발달로 전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은 동시에 대규모로 이들 지구촌 기업의 식품들을 구입하게 된다. 또 서구 식품산업의 동아시아에의 진출(예: 맥도날드, 코카콜라)은 이들 국가들의 식단을 서구화시켜 유희 소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다. 그 결과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암과 심장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75%가 사는 130여 개의 가난한 나라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치고 있다. 선진국의 슈퍼마켓에서 표준이 되다시피한 각종 매력적인 포장 대신 그곳의 소비자들은 곡물과 콩이 담긴 푸대자루를 만난다. 과일과 야채는 제철에만 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은 주로 해외에 수출된다. 식품 주변에는 파리들이 들끓고 있으며, 밤이 되어도 팔리지 않은 식품의 대부분은 썩기 전에 노점상들의 가족이 먹거나 일부는 폐기된다. 정보화가 한창 진행되고 지구촌화가 가속되는 현 시점에서 가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양상태가 예전보다 그렇게 나아졌다는 보고는 없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의식과 품위를 갖춘 전통적인 식사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븐과 전자렌지의 발명은 주부를 과잉노동 시간에서 해방시키면서 식사행위의 혁명을 가져왔다. 공동의

식사행위는 이제 정형화된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식탁에서의 권위의식은 줄어들고 식사 과정에서 위생과 건강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또한 식사 시간이 급속히 줄어들어 패스트 푸드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홍콩의 주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변의 패스트 푸드 음식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더군다나 맛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게 됨에 따라 주부들은 음식 장만에 쓰이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량으로 가공처리된 음식들이 식단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제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내세운 상품들이 초고속 성장 상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식사 자체가 인스턴트화 되고 간편하게 됨에 따라 남성들도 손쉽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과 성도덕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남성들이 손수 식사를 장만해야 하는 횟수가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맞춰 포장된 요리가 널리 등장하였다. 요리하는 것이 커다란 일이었던 전통적 식사시간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하였고, 여기서 아이들은 끈기와 예절을 배웠다. 그러나 전자렌지 혁명은 이런 모든 식사관습을 일변시켰다. 주방은 단지 주린 배를 채우는 장소가 되었고 식구들은 아무 때나 도착하는 대로 식사를 하였다. 공동의 식사로 식구들을 묶어주고 가족을 결속시키는 재래의 유대강화 의식은 매우 희박해졌다. 심지어 식구들이 식탁에 모일 때조차 대화는 없이 모두 TV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바네트와 캐버나, 1994b: 11-80). 이러한 식사생활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규범의 해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IV. 맺음말

미래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논의한 것 이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래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보고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뽑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민국가의 통제력 약화와 그에 따른 정체성 문제다. 정체성의 성립은 주로 그러한 변화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립되고 있다. 여러 정체성 문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체성 강화 문제와 그에 따른 기존의 지배적 이념체계였던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의 위기다. 가부장제적 가족구조의

위기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라 많은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가부장제적 가족구조의 해체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 사회에 따른 일상 생활 변화와 전자오븐의 발명은 식품산업의 세계화와 그들에 의한 식단 및 미각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또한 전통적 식사규범을 변화시켜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에 일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1992.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_____, 1993.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드러커, 피터/김용국역, 1989. 『새로운 현실』. 시사영어사.
 _____ /이재규역, 1993.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한국경제신문사.
 바네트와 캐버나/황선홍역, 1994a. 『글로벌 드림스 I』. 고려원.
 _____, 1994b. 『글로벌 드림스 II』. 고려원.
 배규한, 1995. 『미래사회학』. 사회비평사.
 윤영민, 1996. 『전자정보공간론: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회학적 탐색』. 전예원.
 이근무, 1996. "정보통신혁명의 사회학적 함의",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한국사회학회. 1-30쪽.
 토플러, 앨빈/윤종혁역, 1981. 『미래의 충격』. 한마음사.
 _____ /윤재천역, 1981. 『제3의 물결』. 주우.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Publishers.
 _____, 1997.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Publishers.
 _____, 1998. *End of Millennium*. Blackwell Publishers.